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현대불교

심포플이 부상에 오염되지 않는 피부!

각종 유해 대기 중에서도 인공적이고 심한 신인한 피부
이제 깨끗·차이 되실게 인공은 정제된 스킨케어
전년 주유에 할당액이유리부상 스킨케어

(주)현대 불교 미술 연구원 (02)737-8881
구미로의 현대불교신문사 빌딩 5층 (02)737-8881

명예회장 노태환/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발기 2541년(서기 1997년) 3월 12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16일(음 2월8일)은 불교의 4대 명절의 하나인 부처님 출가절이다. 싯달타 태자가 29세때 출가 병들고 죽어이하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번민하던 끝에 마침내 출가한 날이다. 왕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찾아 구도자의 결을 내디딘 날이다. 출가 사문(사문) 또는 운수(운수)라고 한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밖으로 발을 밟아 육신을 유지하고 인으로는 진리를 밟아 증생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자라' 출가에 대한 경건과 어록의 말씀을 듣는다. (편집자 주)

출가에 불도를 배우면 도를 지키고 바른 결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면서 승가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장노계)

부과 양친과 친척과 육신의 쾌락보다 큰 쾌락은 진리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야 한다. (파리문집(합경))

부모형제와 이별하고 출가한 사문은 육망을 쉬고 애욕을 끊어, 자기 마음의 근원과 법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안으로 얻을 것이 없고 밖으로는 구할 것이 없어, 마음은 진리에 도 미치지 않고 업도 짓지 않는다. (사십이경)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그러나 출가는 넓직한 들안이며 번거움이 없다고 생각해 출가한 것이다. (숫타니파)

사람들로부터 떠나 고독한 생활을 하고 익히라. 번뇌의 속박으로부터도 이탈하라. 만약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으면, 자기의 감각

을 초파일 봉축행사 확정 15년

거조암 5백나한 '1년 휴가' 14년

'금강산은 부처님 땅이다' 12년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현존 最古 고려옷 발견

지공화상 계첩·통일신라 금동불상 2점도

해인사 성보 조사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의복으로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말(1326년경) 의복 11점과 지공(指空)스님의 계첩(戒牒)(1326년 제작)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의복과 계첩은 조계종의 의복을 받아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박하스님)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성보실태조사 중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 복장유물에서 출토된 것으로 국보급 유물로 평가

되고 있다. 또한 대적광전 불단진단구(鎧壇具)에서 보석공배로 장식된 금동여래입상도 출토됐다. <관련기사·화보 7면> 반수포(半袖袍) 등 포류(袂) 5점과 적상류 3점, 삼베로 만든 소매 2점, 남색명주선 1장 등 의복은 어른과 어린이의 광상복으로 추정된다. 이중 '송부개'라는 명문이 찍힌 모시로 만든 15세 남자의 광상복은 그동안 학계에 이르면 전해 오던 요선철릭(腰線天翼·허리선에 주름이 잡힌 옷)으로 밝

혀졌다. 문화재위원인 유송옥 교수(성균관대 의상학)는 "이들 의복은 고려복식사 연구에 획기적이고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복과 함께 비로자나불에서 발견된 지공스님의 사경계첩(戒牒)은 모두 12장으로 2장의 변상도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 있어 이 역시 국보급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허송옥교수(정신문화연구원)는 "이번 계첩은 지공스님의 다섯번째 계첩으로 당시의 불

교고려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인사에서 발굴된 두 불상 중 하나는 당초연화문의 관대 3군데에 자수장이 장식돼 있어, 국내는 물론 동양에서도 처음 출토된 세계적인 문화재다. 이번 발견은 성보문화재연구원원이 최근 1년간 해인사 본·말사 1백41개와 강원 원정사 본·말사 16개 사찰의 문화재 및 각종 불교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해인사에서 고려시대 소형 금동부처(金銅佛)와 철보살화상(鐵佛) 등 2천3백여점, 원정사에서 1천500여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해인사에서 영산화상도, 104위 신장탱화, 세조대왕 영정의 재료가 진정중이며, 아직 공개되는 않았으나 원정사 9층에서 고려시대 대라니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우 기자)



"고려 옷 671년만에 세상으로"
해인사에서 발견된 요선철릭(腰線天翼) 등 의복 11점은 고려시대 옷으로는 처음 완전한 형태로 발견돼 국보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15세 남자의 광상복 요선철릭은 매우 새나 선의 미감이 현대패션을 방불케 한다.



내일의 성보 '佛龕'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오해균씨의 '불龕(佛龕)'이 대상상을 받았다. 단단한 대추나무에 삼신불화상도를 역동적이고 섬세하게 조각, 정교함이 극히 뛰어난 목공예품이다. (관련기사 13면)

이번 발굴유물은 가치평가 작업을 거쳐 미공개유물과 함께 목록 및 도록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성보실태조사는 오는 2005년까지 본 각 사를 중심으로 말사까지 실시된다. (한영우 기자)

총무처장관 유임
전불련 '유감 표명'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은 지난 5일 이번 개각과 관련 "김한규 총무처 장관이 경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종교평화정책의 재발방지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불련은 또 "김대통령의 개각은 현비리와 관련한 국민의 의혹을 해결하고 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경질실각 입에도 불구하고 장난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본사사령

- 위영린 취재1부장 겸 조사자료부장
- 이경숙 취재2부장 직대
- 박삼균 편집부장 직대
- 박정훈 출판사업부장 직대
- 조원희 전략정보실장
- 조동규 출판사업부장
- 선정호 기획관리차장
- 최상철 영업과장 대우
- 이승철 총무부 대리
- 김학표 출판사업부 대리
- 임은숙 전략정보실 수습사원 (命 1997년 3월 19일)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3월 테마여행-내소사

한국의 색·불·풍(조형미와 단청)

내소사는 반산반도 남단에 자리잡은 고찰로 연꽃 국화 등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꽃무늬문자로 유명한 대웅보전(보물 제271호)과 고려시대 동종(보물 제277호) 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못 하나 쓰지않고 나무를 서로 교합하여 건축한 대웅전은 조선전기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로 천장의 꽃무늬와 뒤벽의 백의관음보살도가 유난히 눈길을 끄니다. 또한 일주문에서 현암문으로 이어지는 쪽쪽 뻗은 전나무길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나무터널로 속진을 찾아줍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채서강도 들릴 예정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3월 호남명찰로의 테마여행에 독자들과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참가 안내

- 출발: 3월 23일(일) 오전 7시·조계사 앞
- 안내: 김정희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
- 호비: 3인(사람에서 점심공양)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한주여행사 (02)738-8100
- 조종은형 계좌 322-04-221460(선정호)
- 4월 27일 석굴암 남산-한국인의 얼굴
- 5월 25일 대흥사-불 조그고 한국인의 풍류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념 성품, 특별 보급 안내

- 코끼리 꽃꽂이반 350×230mm ■ 특가: ₩120,000
- 탄생불(390mm) ■ 장엄코끼리 받침 470×280mm ■ 특가: ₩330,000(받침포함)
- 대장경(국보 제32호) 금동 반야심경
- 비경 천불 금강경 ■ 경판규격: 505×255×8mm ■ 재질: 주석 99.9% (24k 순금세금) ■ 특가: ₩480,000
- 금강경 10폭 병풍 ■ 후면: 석가 세존 일대기(팔상목) ■ 특가: ₩490,000
- 부모은중경 10폭 병풍 ■ 후면: 반야심경(추사영인본) ■ 특가: ₩480,000
- 코끼리(小) 규격: 215×185(mm)
- 코끼리(大) 규격: 280×240(mm)
- 법륜 규격: 215×200(mm)
- 일원(옥) 규격: 250×220(mm)

三田佛事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19 (원당B/D)
전화 (02)732-6095~6
FAX (02)735-5293